지붕없는 주제관서 대나무 가치 재발견

〈죽녹원〉

담양군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 박차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2015.6.27~8.15 죽녹원

식품·섬유·조경·바이오 활용 모색
국제교류전·이벤트·학술대회 풍성
미·일 대나무협회와 네트워크 구축

최근 인터넷과 SNS 상에는 '대나무숲'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들어준 '대나무숲'처럼 특정 직업이나 관심사를 가진 현대인들이 모여 고민을 털어놓는 가상 사이트를 '대나무숲'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나무숲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힐링의 공간이다.

담양군이 준비하고 있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2015년 6월 27일~8월 15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는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총사업비 145억(국·도비 72억5000만원·군비 72억5000만원)을 들여 면적 31만3000㎡ 규모를 활용해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된다.

◇**대나무의 재발견**=이번 박람회는 죽녹원을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설정해 '친환경박람회'를 표방하고 있다. 규모보다는 콘텐츠로 승부하고 '작지만 강한 박람회', 기존 시설물 활용으로 '사후 관리에 부담이 없는 박람회'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대나무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흔히 대나무는 기존의 전통 죽세 공예 분야로 생각하는데 식품, 섬유, 건축 조경, 첨단바이오 분야까지 그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나무는 아미노산, 지방산, 무기성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중풍, 심장질환, 파상풍, 발한, 구토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 죽엽주, 죽순요리, 대통밥 등이 웰빙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 죽세 공예 분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까지 대나무를 활용한 담양의 죽세공예가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플라스틱과 값싼 중국산 제품 등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대나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신산업화를 통해 산림·경제 수종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박람회의 주체가 된 것이다.

또 담양군은 전국 유일의 청죽시장과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나무 관련 무형문화재 6명과 명인 9명, 준명인 4명을 보유하고 있다. 가히 '대나무골 담양'이라는 말이 허투루 있는 말이 아닌 것이다.

◇**학술대회 풍성**=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제교류전, 학술회의, 문화·산업전시와 각종 이벤트 등을 대나무의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 행사도 곁들여 진다.

대나무의 품종, 재배기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또 행사장에는 기업홍보관, 산업관, 체험관, 음식관이 운영돼 대나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세계대나무협회(World Bamboo Organization, WBO), '제10회 세계대나무총회(World Bamboo Congress)'가 박람회 행사장 내에서 개최된다.

WBO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1800여명이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대나무 재배와 산업화에 대한 회원들 간의 기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담양군은 WBC 개최를 계기로 미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세계대나무 협회와의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 박람회를 통해 '대나무와 함께 인류의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 과제인 지구온난화·탄소배출량 문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나무'를 통해 그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 밖에 (사)한국대나무발전협회도 창립된다. 이 협회 창립으로 대나무의 재배, 생산, 유통에서부터 활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근기자jjg@kwangju.co.kr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주무대로 활용될 죽녹원.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파라솔 설치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화사한 봄 만끽하세요."

화순군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내 용대못 주변에 일곱 빛깔의 대형 파라솔을 설치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은 6일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이곳을 찾는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고, 분수대와 물레방아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형파라솔 그늘에 앉아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분수대와 물레방아를 바라볼 수 있고, 연못 내에 살고 있는 100여 마리의 비단잉어와 금붕어 중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인면어를 감상할 수도 있다

하니움을 자주 찾는다는 화순읍 주민 김모씨는 "잔디광장 주변에 시원한 그늘이 없어 조금 아쉬웠는데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여 편히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호응

화순군이 진행하고 있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화순군은 6일 "만연산 동구리 호수공원과 오감연결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운영하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만 25회 486명의 유아들이 참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비만 등 건강과 사회 적응에 문제를 겪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고 사회성, 창의성 등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죽순 불법 채취하지 마세요 담양군 단속반 편성 내달 27일까지 집중단속

'대나무의 고장' 담양 대숲에서 촉촉한 봄비에 땅을 뚫고 올라온 죽순〈사진〉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죽순을 캐는 사람들로 담양 대숲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오는 6월 27일까지 죽순 등 임산물 불법채취 중점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은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채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자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산주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굴·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최근 제철을 맞아 생산이 한창인 웰빙음식의 대표 주자 '죽순'의 불법채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14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를 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임산물은 산주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장성군 3D 영화 상영관 큰 인기

장성군이 대도시 영화관을 가지 않고도 주민들이 최신영화를 3D로 즐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에 따르면 군립도서관 내에 3D 영화 상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이후 DVD 상영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올 현재까지 1300여명이 이곳에서 3D 영화를 즐겼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군은 지난해 말 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최대 1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좌석을 비롯해 3D프로젝터와 전동스크린, 방음 및 햇빛 차단기 등 3D 영화상영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바쁜 일상으로 상영 영화를 놓친 주민에게 영화 관람 편의를 제공해 주민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문화시설사업소 관계자는 "3D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이후에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3D 영화관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13시 30분·15시 30분으로 1일 3회이며, 홈페이지(http : //www.jsah.net)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1-393-7900.

/장성=김용호기자 yongho@